

# 탐정의 인간적 고뇌를 통한 사회 성찰

## -소설 <Y의 비극>을 중심으로-

이름	송수빈
날짜	2018.12.23.(일)

<목차>

1. 고전 추리서사 속 탐정의 역할
2. 탐정의 인간적 고뇌를 통한 사회 성찰
  - 2-1. 레인의 인간적인 면모
  - 2-2. 재키의 범죄에 대한 심판
3. <Y의 비극>의 차별성과 의의

## 1. 고전 추리서사 속 탐정의 역할

흔히 고전 추리를 ‘게임의 서사’라고 한다. 고전 추리서사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완성하는 퍼즐 게임이다. 수수께끼 풀이라는 공식에 따라 탐정은 범인을 쫓는데, 수사 과정은 다양한 증거와 논리적 사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Y의 비극>의 탐정 ‘드루리 레인’은 다른 추리소설의 탐정과 달리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탐정들과 같이 우수한 관찰력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탐정으로서 자질은 충분하다. 레인이 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각종 증거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수사하는 동안, 독자는 레인에 자신을 동화시켜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면서 지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때 탐정이 알게 되는 단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면서도 독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적당히 밀고 당기는 것이 바로 작가의 역할이다.

추리서사에서 일반적으로 탐정은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반면, 범인은 완전한 사회악으로 묘사된다. 즉 탐정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선(善)과 악(惡)이 대립한다. 고전 추리서사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범인은 사회악으로 징벌의 대상이었으며, 탐정은 사회의 안전과 정의의 승리를 위해 범인을 응징하는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였다. 영국의 추리소설 <셜록 홈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홈스는 언제나 냉혈하고 이성적이지만 선한 인물이지만, 그에 대립하는 모리아티는 극악무도한 절대 악이다. 즉 홈스와 모리아티의 대결은 곧 영웅과 악당의 대립 구조이다. 독자는 홈스가 모리아티를 응징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법과 질서가 항상 승리하는 권선징악의 서사 구조가 당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드루리 레인은 기존의 탐정과 차별성을 가진다. 홈스가 영국 제국주의적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난 인물이라면, 레인은 남들보다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갖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이다.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는 태도는 기존의 제국주의적 탐정과는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준다. 다음은 레인의 사고 흐름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Y의 비극>이 기존 추리서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것이다.

## 2. 탐정의 인간적 고뇌를 통한 사회 성찰

### 2-1. 레인의 인간적인 면모

뉴욕 앞바다에서 어선에 의해 시체 하나가 걸려 나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시체는

미국의 미치광이 백만장자 집안의 주인 요크 해터로서, 그의 주머니에는 ‘나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살한다’라는 유서가 들어있었다. 이때부터 온 뉴욕 시민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해터 집안에서는 불가사의한 살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레인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투입되지만,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기이한 단서들은 오히려 수사를 오리무중으로 빠뜨렸다.<sup>1)</sup>

레이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독순술을 써서 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탐정들처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레인은 해터 집안사람들과의 대화와 범인이 흘린 각종 단서를 조합하며 수사를 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레인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해터 집안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아이 재키였다. 레인이 재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 동안 독자 역시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함께 놀라게 된다.

레이가 다른 추리소설의 탐정들과 다른 것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고전 추리소설의 탐정들이 단순히 자신의 지적 능력을 뽐내며 사건만을 술술 해결하는 동안, 레인은 끊임없는 고뇌를 반복한다. 이 고뇌는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레인에게 몰입한 상태의 독자들은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그로부터 두 시간 뒤 레인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어째서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에 이렇게까지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했는지?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요컨대 자기에게 기어이 관여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아마도 정의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레이가 재키가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장면이다. 보통의 탐정들이라면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정의’ 혹은 ‘자신이 관여해야 할 의무’의 범주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는 않는다. 결말 부분에서 레인의 인간적인 고뇌가 매우 잘 드러나는데, 재키가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상황에서 레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재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재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화의 기회라고 해봐도 후에 성인이 되어 정신 병원에 들어가는 비극으로 끝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레인은 결국 자신 스스로를 심판자로 자칭하며 재키의 죄를 직접 응징하였다. 재키가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되는 우유컵을 재키의 것과 바꿔치기한 것이다. 어찌면 레인은 재키가 우유컵에 독극물을 타지 않길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레인의 행동은 결국 재키가 자기 자신을 살해하도록 만들었다.

재키가 죽은 후에도 레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옳은지에 대하여 고뇌하고 자책한다. 마지막 경감과 레인의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레인은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계속 성찰하였다. 독자들은 레인에 자신을 이입하여 수사했기 때문에 레인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고, 비슷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 2-2. 재키의 범죄에 대한 심판

<Y의 비극>에서 작가는 해터 집안사람들을 유전적으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렸

1) 엘리리 퀴, 『Y의 비극』, 강호걸 옮김, 해문출판사, 2004

다. 레인 역시 마찬가지로 재키의 행동이 온전히 재키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요크 해터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탓인지, 그 책임을 어디에 몰아야 할지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나는 법률을 글자 그대로 지지해야 할 의무도 없었으며, 게다가 근본적인 죄는 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나 계기도 그의 책임은 아니고,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그 소년이야말로 가공할 환경의 희생자이므로……. 그에게도 당연히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레인은 사건 풀이 중 이렇게 말하였다. 해터 집안과 재키의 범죄를 이 소설이 쓰인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레인의 개인적인 고찰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출간된 연도는 193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대공황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폭력이 들끓는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사회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재키에게 투영되었다. 재키의 범죄는 요크 해터가 쓴 추리소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어린아이로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능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말 재키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재키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데 해터 가문이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근본적인 죄는 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 구조의 희생자라고 보는 것이다.

대공황 시기의 가운데에서 엘리리 퀸은 비정상적인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관해 탐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Y의 비극>에 담았다. 당시 사람들의 폭력성을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성찰을 추리라는 장르로 바꾸어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사회가 개인을 그렇게 만든 것인가, 개인의 온전한 잘못인가, 인간의 선악에 대한 고찰과 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의 문제를 단순히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레인의 고뇌에 담겨있다. 레인의 고뇌를 통해 그 시대를 성찰하는 것이다.

### 3. <Y의 비극>의 차별성과 의의

앞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 <Y의 비극>을 그저 실제 인간사회와 동떨어진 게임의 플롯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소설은 대공황 시기 사람들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면모와 잔악함을 어린아이 재키로 표현하려 하였다. 재키의 잔인함이 온전히 재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세계대전이 끝나고 힘들었던 시기 사람들의 잔악무도한 행위들을 개인 탓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당시 사회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Y의 비극>은 기존의 고전추리와는 다른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주며, 깔끔한 결말에서 오는 통쾌함을 바라는 독자들은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재키의 범죄에 투영하고 독자들을 레인에 이입하게 하여 독자 스스로 끊임없이 사회를 성찰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사회 구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어 지배 담론적 성격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당시에는 추리서사를 통해 시대를 비판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추리서사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독자의 흥미만을 끄는 탐정과 범인의 지혜 대결을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Y의 비극>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본다.